



※ 2018. 7.25. 시간선택제 공무원 연금법 적용 관련 FAQ 안내 이후 2차 안내

예상소득

Q. 시간선택제 공무원 **예상소득금액 작성 기한을 놓쳐서** 예상소득금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A. 예상소득금액 제출 및 검증 이후('18. 8. 8.) 신규 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연금업무지원시스템에서 연금담당자가 직접 예상소득금액을 작성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금담당자 화면 바로가기 → ②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③ 징수 관리 → ④ 기준소득관리 → ⑤ **예상 기준소득입력** → ⑥ 기본정보 및 예상소득내역 작성(나열된 수당에 없을 경우 행추가하여 입력) → ⑦ 저장
※ 예상소득금액을 수정해야할 경우 ⑤ 예상 기준소득입력 부터 재입력

Q. 연금담당자가 **예상소득금액을 연금지원시스템에 별도로 입력한 경우, 입력한 금액을 확인하는 방법과 9월 급여작업 시기**여금은 어떻게 공제 하나요?

A. 예상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정된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액을 인사 급여 시스템에 입력하여 9월부터 기여금을 공제해야 하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연금담당자 화면 바로가기 → ② 연금업무지원시스템 → ③ 징수 관리 → ④ 기준소득관리 → ⑤ **예상소득금액 입력자조회** → ⑥ 주민등록번호 입력 혹은 오른쪽 조회버튼 클릭 → ⑦ 엑셀 내보내기 → ⑧ 엑셀에 산정된 기준소득월액, 기여금액을 기관급여시스템에 수기입력

Q. **2018. 9.21. 법 시행일 이후에 신규로 임용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예상소득금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2018. 9.21. 이후 신규 임용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은 직종, 직급·계급, 호봉별 평균액을 적용(2018. 9.21. 인사혁신처지침)하므로 예상소득금액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Q. A씨의 예상소득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제출했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A. 본인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적용일(2018. 9.21.) 다음 달인 2018년 10월부터 재직 중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기관담당자가 증빙자료 및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가입자관리실로 제출해야 합니다.

① 공단홈페이지 → ② 민원제안 → ③ 각종서식 → ④ 기준(개인) 소득자료 이의신청서 다운로드 → ⑤ 작성예시 참고 후 수정금액 입력 → ⑥ 직인날인 후 공단심사자에게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

참고로, 개인의 기준소득월액이 변동되면 기여금 과·미납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소급재직기간산입

Q. 소급재직기간 산입신청서 작성 시(② 퇴직금 수령 및 퇴직수당 재직기간 산입 여부) 유의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요?

A. 과거 시간선택제 공무원 재직기간을 '① 소급 재직기간 산입'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동 기간을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산입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퇴직금이 퇴직수당보다 많으므로 마지막 Q&A인 <퇴직금>을 참고하여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1. ☒ **수령 체크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① 소급 재직기간'을 산입하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 경우에는 퇴직 시 기관에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2. ☒ **미수령** ☒ **산입 체크 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수당 재직기간에 '① 소급 재직기간'을 산입하겠다는 의사 표시로, 이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향후 퇴직 시점에 발생하는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퇴직연금 또는 일시금 등을 산정하는 재직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Q. 2018. 9.21. 이전부터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고 있는 공무원인 김00씨는 2016년도에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했었습니다. 김00씨도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처럼 소급재직기간 산입을 받을 수 있나요?

A. 과거 시간선택제 공무원 근무기간을 소급재직기간으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18. 9.21. 현재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산입 대상이 아닙니다.

Q.

공적연금연계 신청 후 연계반납금 분할납부 중에 2018. 9.21. 부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어 합산 신청을 할 경우 합산반납금 산정은 납부한 연계반납금을 제외 하고 합산반납금이 산정되나요?

A.

합산신청 시 공적연금연계 신청은 취소가 되므로 납부하신 연계반납금은 환급을 받게 되며, 합산신청 시 작성한 납부방법에 따라 합산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Q.

시간선택제 공무원 소급 재직기간 산입을 사전신청 하지 않았는데 추후에도 계속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소급 재직기간 산입 신청은 사전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으나, 공무원 퇴직(퇴직한 날의 전날)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재직 중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Q.

연금생활자가 2018. 9.21.에 소급 재직기간 산입 신청을 한 후 소급 기여금을 완납하지 않고 퇴직한다면, 소급 재직기간은 인정 되나요?

A.

산입을 받은 소급 재직기간은 전부 인정되며 퇴직급여 지급 시 소급기여금 미납금액이 있는 경우 퇴직급여에서 공제하거나, 연금인급여에서 분할공제(36회까지, 연금의 1/2 범위 내) 할 수도 있습니다.

Q.

한시임기제로 경력증명서상에 1년씩 각각 5개의 경력이 기간 단절 없이 표기되어있는데, 이런 경우 소급재직기간 산입 신청서에 각각 기간을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A.

단절된 기간 없이 계속하여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면, 경력증명서 상의 근무기간을 하나의 재직기간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수령 여부 및 채용유형이 다른 경우에는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퇴직급여

Q. 2018. 9.21.자로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예상퇴직금(월연금 등)은 공단 홈페이지 내연금 보기를 통해 언제 조회가 가능한가요?

A. 10월 초 내연금보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심사프로세스 상 심사마감 후 매월 초 재직정보내역이 등록됩니다.)

<공단의 심사프로세스>

① 매월 소속기관에서 기여금 원천공제자료와 그 달의 신분변동 내역을 공단에 제출 → ② 원천공제한 기여금을 3일 이내(은행 영업일기준) 공단에 납부 → ③ 기관에서 납부한 기여금과 신분변동 등을 심사완료하면 공단시스템에 재직정보 등이 등록됨

Q.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연금수급자인데 '18. 9.21.부터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되면 연금(공무원, 군인, 사학)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연금수급자는 연금정지사유발생('18. 9.21.)의 다음 달(10월)부터 종료(퇴직·임기만료 등)되는 달까지 연금은 전액 정지됩니다. 따라서 '18.10. 1.이전 퇴직했을 경우 10월 연금이 정지없이 지급됩니다.

Q. 시간선택제 공무원 등이 공무원연금법에 적용됨에 따라 연금이 정지가 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요?

A. 공무원연금법 제5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이 전액 정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 제50조(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지급정지)

①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직기간 중 해당 연금 전부의 지급을 정지한다.

1. 이 법(공무원연금법)이나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국민연금

Q. 국민연금 상실신고는 누가, 언제 해야 하나요?

A. 상실신고는 국민연금법 제21조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2018. 9.21.자로 국민연금공단에 상실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콜센터 1355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법 제21조(가입자 자격 및 소득 등에 관한 신고)

① 사업장가입자의 사용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된 사실, 사업장의 내용 변경 및 휴업·폐업 등에 관한 사항과 가입자 자격의 취득·상실, 가입자의 소득월액 등에 관한 사항을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고용보험

Q.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계약기간 종료 후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후에도 고용보험에 계속 가입하여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A.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임기제나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가입은 본인의 선택사항이므로 현재 공무원연금법 적용 이후에도 본인 의사에 따라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재직기간 합산이나, 소급재직기간 산입을 하고 계약종료일까지 근무할 경우에 고용보험 가입을 하시면 고용보험의 혜택(실업급여 수령)을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고용보험법 제10조 3호 참고)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입부(052-704-7274)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Q. 기관에서 지급하는 퇴직금과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 중 무엇이 유리한지 궁금합니다. 산출하는 방법 등을 알려줄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퇴직수당보다 퇴직금 수령이 유리하지만 (퇴직금 지급 비율 = 100%, 퇴직수당 지급비율 = 6.5% ~ 39.5%) 장기간 재직하고 향후 보수가 대폭 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수당 수령이 유리할 수도 있으므로 개인이 신중하게 판단해주시기 바라며, 산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단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의 산출방식(1년미만 재직 시, 퇴직수당 없음)

• 기준소득월액 × 재직기간 × 재직기간별 비율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별 퇴직수당 지급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	6.5%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0%
20년 이상	39.00%		

다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기관에서 지급하는 퇴직금의 산출방식입니다(단, 1년미만 재직의 경우 퇴직금 없음)

- 퇴직당시 보수 × 재직기간 × 100%